

역사와 문화 한 자리에 '전라병영성 축제' 18일 개막

“강진에서 과거와 현재를 함께 체험해 봐요”
병영성 스토리 담긴 조선시대 자취 볼 기회
어린이 동반한 가족체험 프로그램도 한가득

제28회 전라병영성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4월20일까지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라병영성은 조선 1417년에 초대 병마절도사 마천목 장군이 축조한 성으로 대한민국 호국정신의 성지로 손꼽히는 강진의 명소이다. 1992년 3월 전남도 기념물 제140호 전라병영성지로 지정됐다. 2011년 7월 강진 전라병영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라병영성 축제는 국가사적지(제397호) 승격을 기념하고,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열고 있으며 올해로 28회째를 맞는다.

전라병영성 축제는 '과거를 PLAY, 현재를 ENJOY'를 주제로 8개 분야 37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번 축제는 5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전라병영성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관광객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다.

대표적으로는 오징어게임을 병영성 테마에 맞춰 비석치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등으로 재구성한 병영성 게임, 서바이벌 스포츠로 야외 총싸움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바이벌 사격 체험, 미니말·유선양·가북이·토끼·공비단뱀·앵무새·미니돼지·기니피그 등 총 12종의 다양한 동물들을 만지고 먹이를 줄 수 있는 병영성 동물농장 등이 있다.

어린이들을 집중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빼놓을 수 없다. 어린이들에게 인기만점인 솜사탕을 활용한 솜사탕 퍼포먼스 공연과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간단한 육체적인 레저활동으로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병영성 각 쌓기 체험과 장작파기 체험, 에어바운스 도전 챌린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19일 11시30분과 오후 5시30분, 20일 오후 1시와 5시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캐치! 티니핑과 핑크퐁과 튼튼썸의 댄스파티도 준비돼 있다. 주말 오전과 오후 시간 모두 공연이 열려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타임슬립 의복체험 ▲전통놀이 체험 ▲무기 전시 및 체험 등 조선시대를 테마로 한 다양한 이색 프로그램들을 통해 관광객들은 현재에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19일에는 병마절도사 마천목 장군의 입성식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오후 3시부터 개막식 행사가 시작된다. 특히

4시부터 시작하는 개막 축하공연에는 '효도합시다', '독백', '보릿고개' 등으로 유명한 트로트 왕세자 가수 정동원이 출연, 전국 관광객들의 많은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은 “조선시대를 테마로 한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했다”며 “전국 제일의 호국 역사 체험 성지인 전라병영성에서 조선시대의 자취를 느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디지털 아트 통한 '연결과 공존의 문화플랫폼'으로 도약
지역문화 생태계 거점 및 예술-공동체 연결고리로 성장

광주 동구(청장 임택) 예술의 거리를 대표하는 문화복합시설인 미로센터가 개관 6년 차를 맞아 '연결과 공존의 문화 플랫폼'을 비전으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이래 올해는 문화적 통합을 실현하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서, 지역문화 생태계의 거점이자 예술과 공동체 간 연결의 장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지털 아트 중심, 新 '문화예술 생태계'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케어러블 광주' 미로 메타아트 오픈랩 프로젝트가 4월 그 시작을 알렸다.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융합해 상호작용적 경험 확장 등을 담구하는 프로젝트로,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다변화하는 사업이다.

핵심 콘텐츠는 ▲AI(인공지능) 전시 안내 로봇 등 스마트 전시환경 구축 ▲에너지 하베스팅(자연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 기반의 친환경 예술 조형물 제작·설치 ▲동구의 역사성을 반영한 디지털 스토리 구축 ▲3D·VR 기반의 메타버스 활성화 ▲디지털 아트 공모전 등으로 새로운 예술창작 환경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 온·오프라인의 예술 참여기회를 확장하고, 예술인들에게는 디지털 예술 인식변화를 통해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미로센터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예술·사회적 공감의 언어로 거듭나다

예술은 단순한 창작 행위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올해는 예술이라는 매개체가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환경·기후 위기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예술교육 콘텐츠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도시 속 공공예술을 통한 지역 정체성 회복과 공간 활성화 사업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예술 기반 치유 프로젝트 등으로 예술의 거리를 거점으로 펼쳐진다.

단순한 예술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이슈를 예술적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공감하며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문제, 공동체 쇠퇴, 정신 건강 등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공연·워크숍 등 공존의 가치 확산

미로센터는 지역 예술가들이 사회적 감수성과 문화 기획 역량을 함께 갖춘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이슈 기반 창작 기획 교육 및 멘토링 운영 ▲지역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기반 협업 프로젝트 기획 지원 ▲거버넌스 그룹과 함께 하는 실험적 예술 실천 장 마련 등 다각적인 방향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미로 예술인 레지던시' ▲시민(아동, 어르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미로 아트 스쿨'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미로 공연예술 사업'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젝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예술을 통해 공감하고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바로 미로센터의 존재 이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예술, 공동체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로센터 프로젝트들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기획·운영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미로센터 공식 누리집과 SNS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기자

축제 속 축제 함평군, '전국 버스킹&나비댄스 경연대회'

꽃과 나비 속 펼쳐지는 열정의 무대... 총 상금 22백만 원 규모

전남 함평군이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맞아 축제의 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전국 버스킹 경연 대회'와 '나비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함평군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전국 버스킹 경연대회'를, 5월 3일에는 '전국 나비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참가 접수는 4월 11일까지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버스킹 경연대회'는 장르 제한 없이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선을 거쳐 12개의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함평군은 ▲예술성 ▲숙련도 ▲관객호응도 ▲팀원 및 장르 다양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140만 원, 참가상 210만 원 등 총 9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시상한다.

아울러, 본선 무대에는 가수 임재현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어 관객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 나비댄스 경연대회는 '나비'를 주제로 한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겨루는 대회로 4월 14일 동영상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이 선정되며 본선 무대에서는 총 15개의 팀이 본선에서 예술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춤의 창작성과 완성도에 따라 금상 300만 원, 은상 150만 원, 동상 100만 원, 인기상 50만 원, 아차상 30만 원 등 총 1,2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본 행사는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NH농협은행(주)전남본부에서 후원하여 개최한다.



또한 '전국 나비댄스 경연대회'에는 엘리트파크의 퍼포먼스와 가수 딘딘의 축하공연이 함께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함평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www.hpftf.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은 “꽃과 나비로 물든 함평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연대회는 예술

가들과 관람객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라며 “전국의 끼가 넘치는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책사업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꼭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지은행·농지연금